

콘텐츠

2014탁틴스쿨 와~ 보고서표지.....	2
2014탁틴스쿨 와~ 보고서본문.....	3

2014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사업보고서

발행인: 최영희

편집인: 이영희

기획·편집: 정효진, 이예진, 인치은, 이승혜

인쇄: 블루에볼루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전화: 02-338-7480

팩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

2015년 1월 20일 인쇄/발행




2014 사업보고서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타티스쿨

와~



선언문

의심의 눈으로 보호받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 스스로 지키련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흥분시키지만
제대로 깨우쳐주진 않는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낱낱대다가도
고민하고 갈등한다.
우리는 밝고 당당한 성을 찾고 있다.

어지러운 성문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자 한다.
생명을 존중하며 참다운 사랑을 실현하려 한다.
혼자서는 벅차기에 서로 힘을 합치려고 한다.
우리들의 아늑하고 행복한 성을 위하여!

출처 : (사) 탁틴내일 권리선언문

맥(MAC) 비바글램 캠페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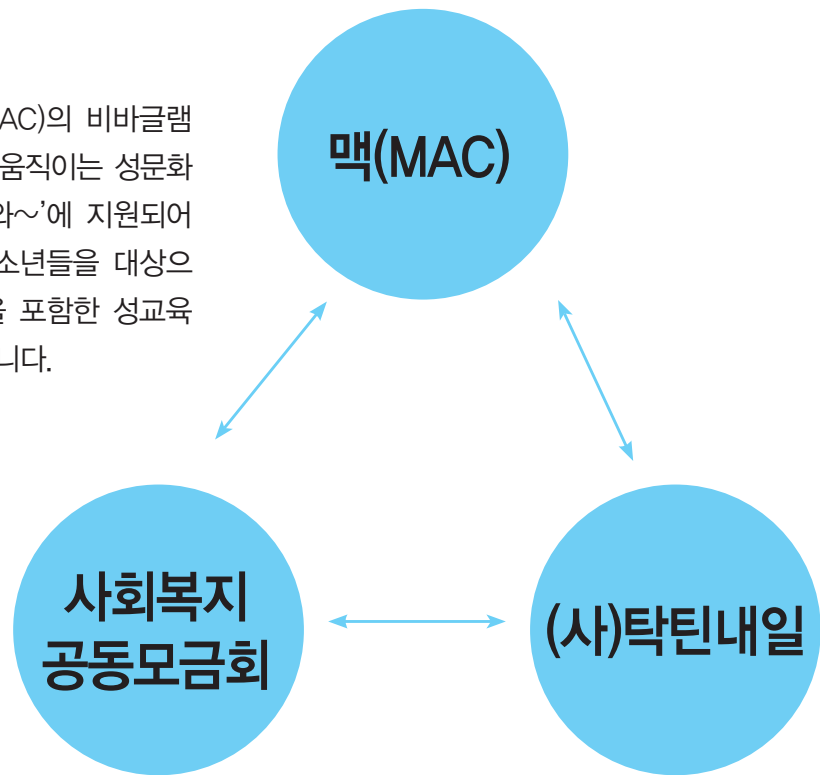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은

‘맥 에이즈 펀드’ 기금 마련을 위해 출시되고 있는 맥 비바글램 립스틱 판매금액 100%를 기부하는 맥의 대표적인 사회환원 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으며 현재까지 23억 달러가 넘는 기금액을 조성해 온 비계약부분 전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즈펀드입니다. 지난 18년간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퍼기, 신디로퍼, 레이디 가가, 리키마틴 등의 글로벌 톱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에이즈의 의식향상과 예방, 조기검진과 감염자들의 복지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비바글램 립스틱 1개의 놀라운 변화

- 5명의 신생아 에이즈 모자감염 예방
- 3명의 남아프리카인 하루식사 제공
- 8명의 활동이 불가능한 에이즈 환자 식사배달
- 2명의 아동·청소년에게 ‘탁틴스쿨 와~’성교육 지원

한국에서는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의 기금이 움직이는 성문화 센터 '탁틴스쿨 와~'에 지원되어 전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MAC**의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Thinking

- (사) 탁틴내일 소개 / 10
- ‘탁틴스쿨 와~’ 소개 / 16
- 사업개요 / 19

Acting

- 교육운영 / 30
- 백령도 섬 순회 性교육 / 34
- 솔직히 까놓고 성에 대해 배우는 캠프 / 36
- 교육소감문 시상 / 38
- 탁틴 Talk! / 40





Contents

Changing

- 만족도 조사 / 46
- 학교에서 온 편지 / 50
 - 학생교육 소감문
 - 교사 후기
- 언론보도 현황 / 62

부록

- 맛집 Best 4! / 70
- 숙소 Best 4! / 72
- 기억에 남는 순간 Best 4! / 74
- ‘탁틴스쿨 와~’ 가족이야기 / 76
- 교육신청 안내 / 79



The Teenager!

Thinking

- (사)탁틴내일 소개
- ‘탁틴스쿨 와~’ 소개
- 사업개요

아동 · 청소년과
함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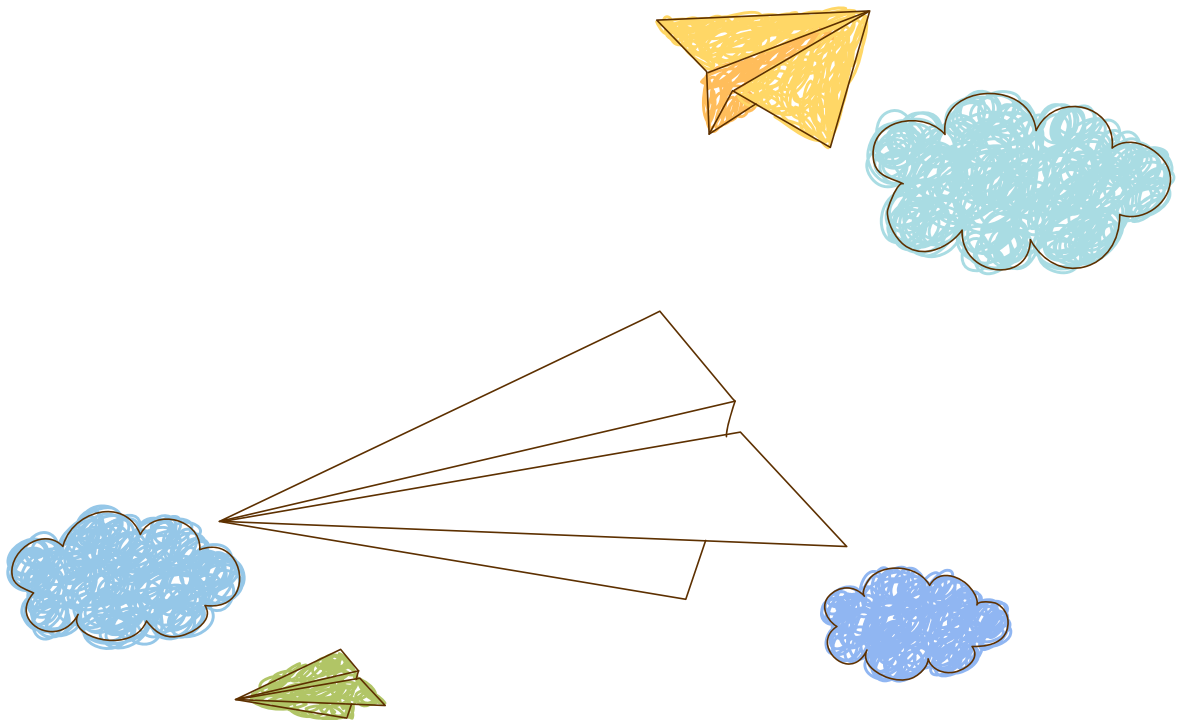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현실화 하고, 봉사로서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변화시키는 장이 되고자 1995년 3월 1일 창립한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 입니다.





설립목적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이끌어 갈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구현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미션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
- 성매매·성폭력 예방 및 근절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 아동·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 태아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자녀를 둔 부모지원



탁틴내일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성교육센터로 아동 ·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생명과 사랑, 성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사와 지도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성에 관한 조사 · 연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성문화체험관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
- 전문가 워크숍 운영
-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교육 운영기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캠페인 활동

엑팓(ECPAT)은 전세계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그래피 근절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탁틴내일은 엑팓(www.ecpat.net)의 한국지부로서 해외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코피노 아동 돕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해외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 캠페인
- 필리핀 코피노 실태조사, 코피노 아동 지원
- 해외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 UN 아동권리위원회(CRC) NGO 보고서작성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성폭력 STOP! 아동·청소년이 웃는 세상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청소년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상담, 캠페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성 & 성폭력상담
- 성폭력 피해지원프로그램
- 교육 및 연구활동



탁틴내일 꿈·나·소

꿈·나·소(꿈꾸고 나누고 소통하는) 청소년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 나누며,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 동아리 및 캠프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탁틴내일 연구소

탁틴내일연구소는 연구 조사 및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연혁

- 1995 내일신문여성문화센터 발족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성교육센터 설립
- 199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족
부설 임신부기체조센터(탁틴맘) 오픈
터키탕 철폐운동 관철
- 1997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사단법인 등록
아우성상담소(현 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개소
- 1999 홈페이지 오픈 (www.tacteen.net)
부설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청소년대상 성매매자 신상공개법 제정 운동
- 2000 전국 한줄로 서기 운동본부 발족
- 2002 **움직이는성문화센터(탁틴스쿨 와~) 오픈**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발족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포
- 200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탁운영
청소년보호대상 단체부문 수상
- 2004 ECPAT 인터내셔널 한국대표로 가입
위기 청소년 1388 긴급보호안전지대 구축
- 2005 멀티미디어 성교육 제2체험관 신설
한국 남성의 아동, 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관광 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 2006 아시아지역 아동대상 해외 성매매 관광 실태조사 및 토론회 개최
성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키리바시선원에 의한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현지지원
- 2007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학교관리자 교육
성폭력상담 매뉴얼 개발 및 발간

- 2008 (사)탁틴내일로 법인명칭 변경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수강명령교육 및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자교육활동
- 2009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 'Let's talk! 건강한 우리들의 성' 플래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중앙운영기관 선정
 '대한민국 청소년 성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 제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운영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역량강화 2차 사업 한국연수 (도미니카공화국)
- 2010 여성부 주최 「찾아가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치료연계 사업」 (탁틴스쿨 와~ 운영)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 및 아버지성교육단 '아빠만세' 발대식
 인터넷 광고 규제 국회 청원
 SAY매뉴얼제작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인성교육)
- 20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MAC) '탁틴스쿨 와~' 1호(Yellow Bus) 제작
 여성가족부 주최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충청남도 시범운영('탁틴스쿨 와~' 운영)
 성교육시간 확대 국회청원
 아동청소년인권보호캠페인 ('2PM과 함께 아동성범죄 NO!NO!를 외치세요!!')
- 20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MAC) '탁틴스쿨 와~' 2호(Blue Bus) 제작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출범식 및 10주년 기념식
 필리핀 해외 성매매 실태조사
 제1회 청소년 정책겨루기
- 2013 여성가족부 주최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사업 충청남도 지역운영기관
 (탁틴스쿨 와~ 운영)
 해외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자간담회 (코피노아버지찾기 운동)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중앙관리기관 운영
- 2014 클린인터넷국민운동네트워크 (온라인 선정적 광고 근절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진행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장애·비장애 통합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뉴얼을 위한 MAC 기부식



‘탁틴스쿨 와~’ 소개

1999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었을때 사람들은 새로운 성교육 방식에 놀라워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성교육 받을기회가 없었던, 보건교사 조차 없는 농·산·어촌 학교의 아이들이 성문화센터의 살아있는 성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싶었다.

‘성문화센터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성문화센터가 농촌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 찾아가면 되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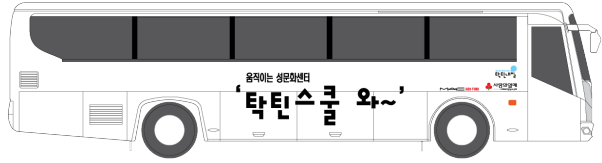
‘대형버스? 의자를 다 뜯어내고 안을 확 고치는 거야. 신기한 스쿨버스 어때?’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2년! 국내최초로 시작된 ‘탁틴스쿨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구 6바퀴 반을 달려 약20만 명의 아동·청소년을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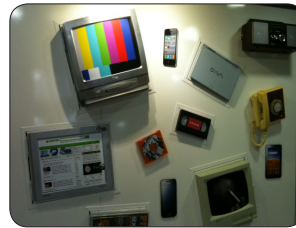
2012년! 세계적인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맥(MAC)의 비바글램 캠페인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 Yellow, Blue 2대의 성교육 버스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아 전국 농·산·어촌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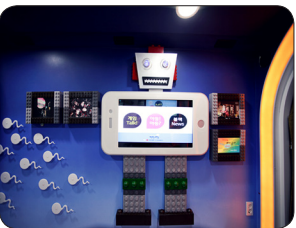
밝고 따뜻한 느낌의 *Yellow Bus*

부드러운 형겔교구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성을 좀 더
바르고 긍정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다양한 과정 속 이야기를 만들어보며 학생들의 눈높
이에 맞춰 즐거운 체험식 교육이 전달됩니다.



신비롭고 산뜻한 느낌의 *Blue Bus*

다양한 미디어와 사실적인 교육 자료를 활용해 성에 대
한 바른 기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대의 문화가 담긴 갤러리를 통해 강사와 소통하며
체험식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업개요

기부자명	이엘씨에이한국 MAC		
기관명 (신청기관명)	(사)탁틴내일		
사업명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사업기간	2014년 2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서비스지역	전국
서비스 대상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실인원수	25,600명
서비스 단가	11,719원(산출식 = 총사업비 ÷ 실인원)	투입인력	9명
사업목적	복지서비스 취약지역(전국 농·산·어촌) 및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체험형 성교육버스로 대상별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한다.		
성과목표	① 복지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율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향상 ② 대상별 맞춤성교육과 콘텐츠 활용으로 성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 ③ 사후관리를 통한 위기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망 구축		
주요 사업 내용 요약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교육 운영	● Yellow 버스 · Blue 버스 교육 운영 - 농·산·어촌 지역 학교(분교) 및 전국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순으로 선발 - 1일 평균 4회 교육 진행 - 1그룹 교육인원 평균 20명 * 세부 프로그램	
		性건강	생명 탄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타인의 몸을 이해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性문화	사회속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性인권	성적취향, 성행동, 사회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하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한다.
	만족도 조사	● 솔·까·성 캠프(솔!직히 까!놓고 성!에 대해 배우는 캠프) ● 섬 순회 성교육 ● 교육만족도 조사 - 기관 평가서 - 학생소감문 ● 소감문 시상	
	사후관리	● 문자(스마트핸드폰)상담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상담	

1. 사업명 :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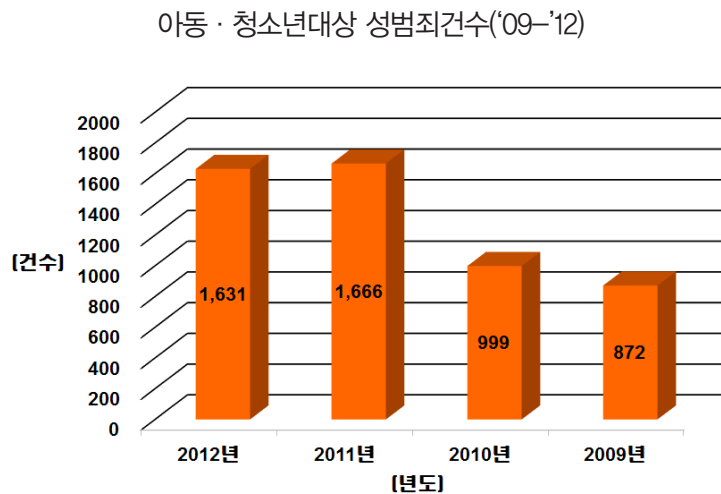
1) 교육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정서적으로는 성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전 생애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을 지향하는 UNESCO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는 주요개념 6가지(①관계, ②가치, 태도, 기술, ③성문화, 사회, 법률 ④인간발달, ⑤성관계, 섹슈얼리티, 성적인 삶의 연속성, ⑥성건강)를 포함하는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상업화된 대중매체, 음란물 등의 영향으로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있으며, 그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성인권 감수성의 취약성으로 성폭력 가해행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 교육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시와 함께 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증가 및 10대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증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3통계에 의하면 2009년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으로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으나 2012년은 2011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3통계]

■ 10대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10대~70대 사이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1,586건 100% 중 10대 청소년 범죄가 239건 15%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강력범죄자(흉악) 18세 이하 구성비에 의하면 2010년~2012년 동안 일어난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범포함), 방화의 강력범죄 중 강간(성폭력범포함)이 전체 범죄의 63% 이상으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단위: 명)

유형 \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강간	200(32%)	182(28%)	112(17%)	97(15%)	41(6%)	15(2%)	3(0.5%)	650
강제추행	39(4%)	152(16%)	206(22%)	268(30%)	172(18%)	68(7%)	31(3%)	936
전체	239(15%)	334(21%)	318(20%)	365(24%)	213(13%)	83(5%)	34(2%)	1,586

[출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2013년]

강력범죄자(흉악) 18세 이하 구성비

(단위: 명)

년도 \ 죄명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범포함)	방화	계
2010년	19	819	2,107	161	3,106
2011년	12	1,082	2,021	174	3,289
2012년	26	877	1,686	201	2,790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년~2012년]

■ 음란매체 유통 증가 및 접근성 용이성에 따른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증가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집, 사무실, 학교, 야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무분별한 정보취득과 음란물, 유해물에 노출 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혹은 불법정보는 사진이나 그림, 만화 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 야동이라 불리는 동영상 파일, 야설로 불리는 텍스트 파일, 아바타 등을 이용해 직접 성행위나 성범죄 행위를 시연 할 수 있는 야한 게임 등이 있으며 유저들이 직접 채팅이나 화상채팅 등을 활용해 주고받는 음란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0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 설문에서 응답자의 79.4%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성매매와도 관련성이 깊다. 2012년 행정안전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부분은 성인물의 악 영향에 대해 인지(91%)하고 있으나 주로 호기심(66.2%, 복수응답)이나 재미(53.5%, 복수응답)로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 서비

스와 스마트폰 이용 확대로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성행동 장면을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등의 일탈행동도 자행하고 있어 음란물 차단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고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경험한 적이 있고, '최초 경험 시기는 주로 초등~중등 1학년 사이다.'라고 응답하였다.

② 농·산·어촌 지역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9,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읍·면(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은 4.8%로 대도시(3.4%)나 중소도시(2.9%)보다 더 높게 나왔다. 반면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님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읍·면(농·산·어촌지역) 학생의 81%가 모른다고 응답해 대도시(57.3%), 중소도시(59.0%) 학생과 대조적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주 양육자들이 대부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다 보니,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일부 부모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거나 이혼, 별거 등과 같은 사유로 가정이 구조적으로 해체되면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이들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례로 2010년 부산 '김길태 사건'과 서울 영등포 '김수철 사건' 등 최근 수년간 발생한 아동·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여 지듯 대부분 도시 외곽이나 농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2) 지역적, 환경적 특성

2013년 통계청, 2011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통계자료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10-19세) 인구는 6,229,715명이고, 그 중 농·어촌(읍,면,도서벽지)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 수는 2,863,441명,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수는 131,944명으로 집계 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없는 아동이 주로 보호대상자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장의 실직, 이혼, 별거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부모 존재 유무를 살펴보면,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가 91.1%, 한부모 가정의 경우 7.3%, 부모님이 안계시다는 1.6%로 나왔다. 이와 함께 농·어촌 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부모 또는 두분 중 한분과 살고 있는 청소년은 86.8% 이고,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도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어촌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정하성, 우룡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3집 (2008. 12))

발달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과 또래친구들을 통해 발달단계별 과업을 습득하여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교육과 보호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래친구들과의 만남과 관계형성을 통해서 사회성 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및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

소년들은 영·유아기때 부터 친밀한 애착관계나 신뢰감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단계별 발달과업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이 비슷한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잘못된 사회성이 형성될 우려가 높다. 그로인해 주양육자로부터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유해환경 및 유해문화에 쉽게 노출이 되고, 왜곡된 성문화를 체득하게 됨으로써 건강한 성가치관이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산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나 빈곤, 가출, 학업중단, 비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효과성 있는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3) 경험적 근거

(사)탁틴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2년 6월 이동성교육전시관 탁틴스쿨 버스 개관 후, 12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약 19만명 이상을 교육해왔다. 주로 전문적인 성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으며 2010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함께 UNESCO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필요한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매뉴얼(초등용,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용)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가 2대가 새롭게 탄생하여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탁틴내일 성교육버스 사업 소개

-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국내 최초의 이동형 성교육전시관버스
- 상설체험관으로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성교육체험관
- 교실을 벗어나 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교구와 모형, 생명 체험관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체험활동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연도별 교육현황

연도별	총계	서울 및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2009년	301회	52회	119회	—	11회	53회	66회
	9,995명	1,617명	4,579명	—	484명	1,462명	1,853명
2010년	464회	115회	123회	25회	19회	104회	78회
	13,633명	3,429명	3,831명	665명	528명	2,910명	2,270명
2011년	679회	12회	48회	10회	573회	25회	11회
	21,042명	360명	1,695명	274명	16,711명	1,241명	761명
2012년	944회	259회	233회	23회	269회	49회	111회
	24,658명	4,595명	7,220명	395명	7,707명	1,615명	3,126명

2013년	1,287회	354회	283회	126회	261회	169회	94회
	23,700명	4,590명	4,596명	3,092명	5,444명	3,750명	2,228명
2014년	1,232회	253회	193회	206회	258회	208회	114회
	26,753명	4,572명	4,644명	4,794명	4,999명	5,054명	2,690명

[출처: (사)탁틴내일 성교육버스 교육현황 2009년~2014년]

4) 본 사업과 관련된 지역 복지자원 현황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총50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기관에서는 지역 체험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 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기관에서 농·산·어촌지역 및 아동복지시설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성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현재 경기도 2곳과 강원도 1곳, 충청북도 1곳, 경상북도 1곳, 경상남도 1곳, 부산 1곳에 이동 체험성교육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엔 체험성교육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교육 수요가 발생한 지역의 물리적 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 1) 서비스 지역 : 전국 농·산·어촌 지역 읍면단위 및 전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소재지
- 2) 서비스 대상 :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 3)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1단계: 전국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 학교와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 2단계: 프로그램 대상별 참여 신청서 및 무료 교육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
 - 3단계: 대형버스(길이 12m, 폭 2.5m, 높이 3.5m)가 들어갈 수 있는 곳
 - 4단계: 대상자가 초과 될 경우 복지 시설, 농·산·어촌 지역(도서산간벽지) 순으로 선발
- 4) 실인원수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 수(명)
① 일반대상	대한민국 아동청소년(10-19세) 6,229,715명	6,229,715명
② 위기 및 표적대상	농·산·어촌 지역(도서산간벽지) 2,863,441명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131,944명	2,995,385명
④ 실인원수	성교육대상 25,600명 (20명×1일 4회×160일×2대)	25,600명

[출처: 통계청2013년, 보건복지부2011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그룹홈 통계자료]

4.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복지서비스 취약지역(전국 농·산·어촌) 및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체험형 성교육버스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한다.	1. Yellow 버스·Blue 버스 교육 운영 - 인원 및 회수: 1,280회, 25,600명 - 대상: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 비율: 취약계층 교육률 80%	- 전체 교육대상자 중 80%는 복지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율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향상
	2. 솔·까·성 캠프 (솔직히 까놓고 성에 대해 배우는 캠프) 3. 섬 순회 성교육 4.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교사대상): 5점 척도 기준 평균 3점 이상 - 학생소감문 - 소감문 시상	-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과 콘텐츠 활용으로 성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
	5. 사후관리 - 문자(스마트폰)상담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상담	- 사후 관리를 통한 위기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5. 사업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성과목표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 복지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율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향상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 Yellow 버스·Blue 버스 교육 운영 -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순으로 선발 - 1일 4회 교육진행 - 1그룹 평균 교육 참여 인원 20명 - 세부프로그램 참조 • 솔·까·성 캠프 • 섬 순회 성교육	2014. 2~12	Yellow bus 성교육 강사 2명 운전자 1명 / Blue bus 성교육 강사 2명 운전자 1명	25,600명	1회 40분 ~ 50 분
•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과 콘텐츠 활용으로 성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		• 교사만족도 조사 • 학생소감문 • 소감문 시상				1,280 회
• 사후관리를 통한 위기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문자(스마트폰)상담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상담				

2)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수행 인력
性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몸 위생관리 • 자궁 내 개월별 태아모형 관찰하기 • 신생아 인형 안아보기 • 산모인형 태동체험 • 임신재킷 체험하기 	Yellow 강사 2명 운전자 1명 / Blue 성교육 강사 2명 운전자 1명
性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전시교구를 활용한 미디어 속 성문화 토론 •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 기르기 • 성폭력 통념과 관련된 OX퀴즈 풀기 • 마을그림 속 성폭력 상황 및 대처방법 익히기 	
性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속 성의 다양성에 대한 토론 • 연애시 신체접촉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의 방식 알아보기 •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알고 피임의 종류 및 유용성, 활용법 익히기 • 성병에 대해 알아보고 에이즈에 관련된 편견 깨기 	

3)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시기
• 복지서비스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비율 지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향상	- 전체 교육대상자 중 농·산·어촌 지역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교육률 80% 이상 진행	기관 자체조사	- 주단위보고서 - 지역별통계 자료	연말
• 대상별 맞춤형성교육과 컨텐츠 활용으로 성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	- 교사대상 만족도조사 척도 기준 3점 이상 - 학생 교육소감문 5%이상	기관 자체조사	- 만족도조사지 분석 - 학생소감문	매 교육시
• 사후관리를 통한 위기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망 구축	- 문자(스마트핸드폰) 상담 - 홈페이지상담게시판 활용 100건 이상	기관 자체조사	- 문자(스마트핸드폰) 상담 -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상담 통계자료	연말

4) 사업 진행 일정

내용 \ 기간	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정보안												
교육신청 접수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교육 실시												
섬 순회 성교육												
술·까·성 캠프 (솔직히 까놓고 성에 대해 배우는 캠프)												
문자(스마트핸드폰)상담 및 홈페이지(상담게시판)상담												
교사대상 만족도조사 및 학생 교육소감문 취합												
소감문 시상												
보고서 작성												

Acting

- 교육운영
- 백령도 섬 순회 성교육
- 솔직히 파놓고 성에 대해 배우는 캠프
- 교육소감문 시상
- 탁틴 Talk!

아동 · 청소년과
함께 행동합니다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교육 운영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2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 전국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 멀티미디어교구를 탑재한 Blue bus, Yellow bus를 활용하여 체험형 성교육 진행
 -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교육을 80% 이상 진행
- 교육실적: 1,232회 / 26,753명
- 세부 프로그램

성 건강

생명 탄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타인의 몸을 이해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성 문화

사회속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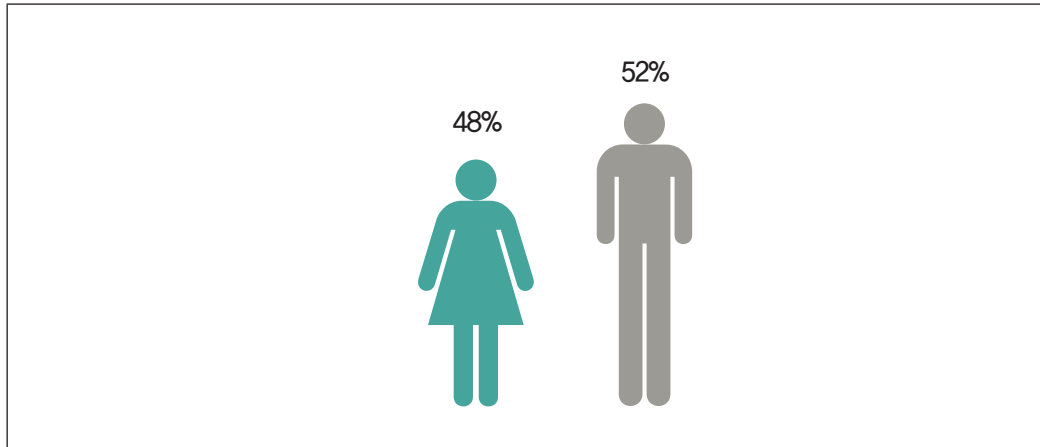
성 인권

성적취향, 성행동, 사회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하며,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한다.

[2014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교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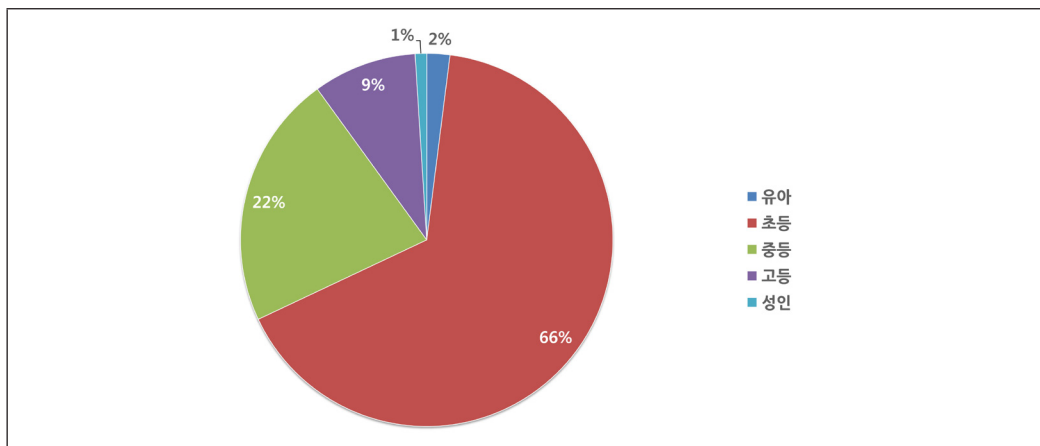
본 분석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26,753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성교육을 실시하여 각 문항별로 성별, 대상별, 지역별, 취약계층별로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1. 성별분포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6,753명의 교육인원 중 남자가 52%(14,013명)로 여자 48%(12,740명)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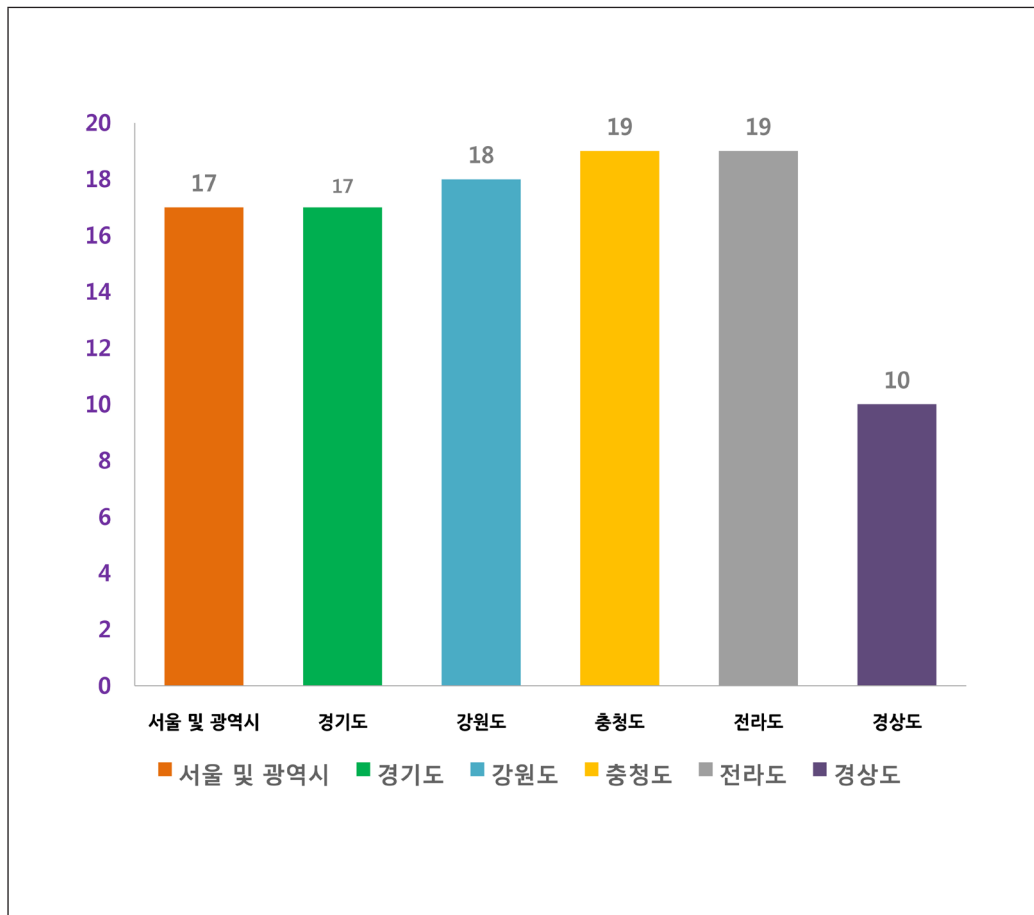
2. 대상별 분포



교육 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66%(17,774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2%(5,916명), 고등학생 9%(2,406명), 유아 2%(409명), 성인 1%(248명)로 각각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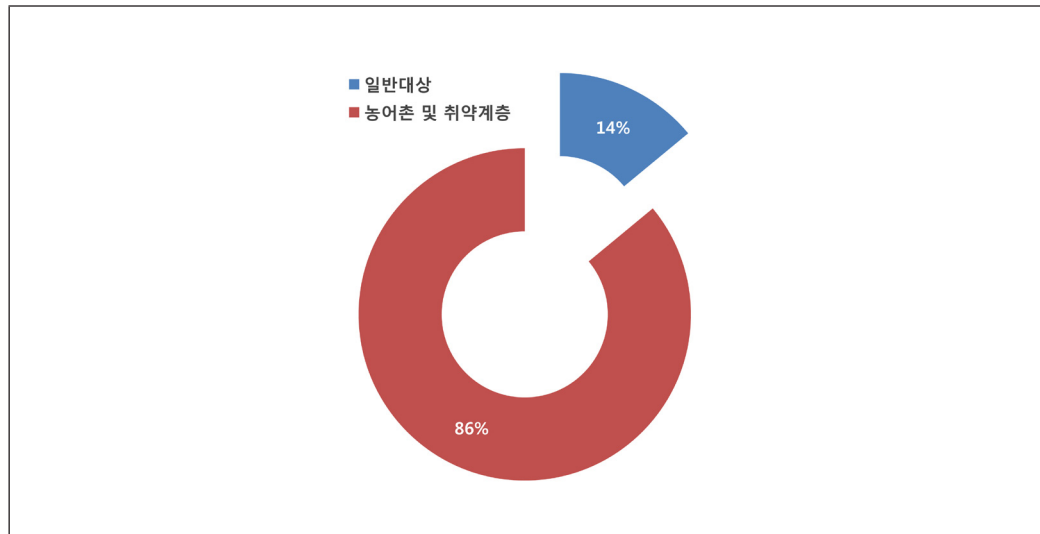
3. 지역별 분포

	서울 및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총계
총합	253	193	206	258	208	114	1,232회
	4,572	4,644	4,794	4,999	5,054	2,690	26,753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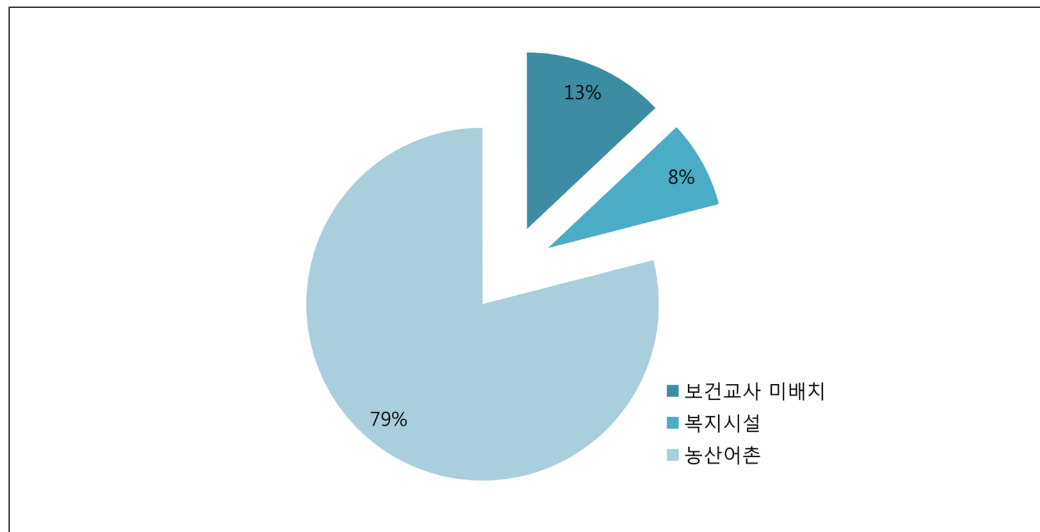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라도 19%(5,054), 충청도 19%(4,999), 강원도 18%(4,794), 경기도 17%(4,644), 서울 및 광역시 17%(4,572), 경상도 10%(2,690)로 약간의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전국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교육 현황 분포



교육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교육 중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비율이 86% (22,947명), 일반대상 14%(3,806명)로 교육목표(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80%)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다.

5. 취약계층 세부 현황



취약계층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및 취약계층 100%(22,947명) 중 농·산·어촌 79%(18,085명), 보건교사 미배치 13%(3,000명), 복지시설 8%(1,86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친구들을 만나다!

- 일 시 : 3월 11일 ~ 3월 14일
- 장 소 : 백령도종합사회복지관, 북포초등학교, 백령초등학교, 백령중고등학교
- 대 상 : 지역주민(가족단위) 및 부모, 초·중·고등학생
- 실 적 : 13가족 약 20명, 아동·청소년 363명(초등182명/중등68명/고등113명)

서해 최북단의 섬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백령도는 성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도서 지역입니다. 이에 '탁틴스쿨 와~' 성교육버스는 섬 순회 성교육을 기획하여 지역사회단체인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기관과 연합으로 아동·청소년 및 주민들의 안전한 성문화 환경조성 확산에 기여하고자 순회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까지 배편 이동만 왕복8시간, 버스 이동은 왕복24시간 이라는 긴 여정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군인가족을 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성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 유의미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악한 섬 지역에 다양한 자원이 꾸준히 지원되어 건강한 성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한상혁**

안녕하세요.

저는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한상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3월에 뵙고 글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탁틴내일 이 먼 백령도까지 오셔서 여기서는 그동안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체험형 성교육을 해주셨던 것을 지금도 학교와 복지관에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고등학교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써 학생들을 위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최근 청소년들의 성 의식 수준은 정말 위험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백령도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교육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 학교나 복지관 직원들은 성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탁틴내일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매년 백령도를 찾아와 주셔서 백령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너무너무 부탁드리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솔직히 까놓고 배우는 성교육 캠프

- 일시: 2014년 8월5일(화)~6일(수)
- 장소: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 상: 다문화가족 자녀, 저소득층 자녀, 강화 주민 및 관광객
- 실 적: 총 229명(유아 31명/초등 77명/중등 46명/고등 8명/성인 67명)

무더운 여름 8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솔·까·성 캠프(솔직히 까놓고 배우는 성교육의 약칭)가 강화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 강화군드림스타트센터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성교육버스 안에서 진행된 체험성교육 외에도 정자난자클레이 만들기 등 기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동안 캠프 준비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닌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바쁜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어 캠프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솔·까·성 캠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성! 멋진 성! 을 누리길 응원합니다!



* 슬까성 캠프 프로그램

구분	일시	대상	프로그램	
솔 · 까 · 성 캠프	8월 5일	유아~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소개 및 캠프 안내 정자 · 난자 클레이 활동 퀴즈탈출 넘버원 체험형 버스성교육 풍선아트 	
해변아웃리치	8월 5일 ~ 6일	유아~성인	부스1	슬까성 Talk!
			부스2	연애에 관한 남녀 뇌구조
			부스3	유해환경
			부스4	퀴즈탈출 넘버원
			부스5	간식 및 기념품 제공

To, 부모님께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둘째 딸 서연이에요, 저는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왔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클레이도 하고 신기한 버스에서 교육도 받고, 태동도 느껴보고 아기도 안으며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는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성교육중 제일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 아닌 언니와 동생을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 초등 임서연 -

To,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막내 딸 유민이에요, 부모님 이 펜션 일을 하셔서 밥도 제 때 못 챙겨 드셔서 제가 봐도 몸무게가 많이 빠진거 같아요, 그래도 저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안 왔으면 후회 할 뻔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성교육 공부도 하고, 태동도 알고, 클레이도 만들어서 아주 좋았어요, 성교육 공부에서 애기를 낳는 것을 배웠는데, 그 때 저와 오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해요♡

- 초등 유민 -

기존의 성교육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정형화 된 학교에서의 성교육보다 개방적이어서 좀 더 쉽게 성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이론으로 접하는 성교육보다 이런 게임식의 성교육이 더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다, 잘 모르는 점 어릴때 쉽게 여쭙지 못했던 것들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알게 되었고, 뭉뚱그려 알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친근하게 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린다, 한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재미있었다.

- 중등 강명지 -

성교육을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그렇게 꺼려지지도 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또, 자세히 모르던 것도 퀴즈를 통해 재밌게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 받을 때는 어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잘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좋은 것 같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다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우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 중등 이혜원 -

To, 미래의 9년 후 나에게

안녕, 미래의 나야 지금 너는 야구선수가 되어 좋은 활약을 하겠지,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도록 야구 연습과 운동을 열심히 할게! 항상 건강해, 그럼 안녕!

- 초등 이정민 -

교육소감문 시상

- 기 간 : 2014년 12월
- 대 상 : 버스성교육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 내 용 : 교육 후 소감문 취합하여 및 우수소감문 선별하여 시상 진행
- 실 적 : 51명(초등 30명 / 중·고등 21명)

2014년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는 전국의 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학생들의 소감문들을 읽다보면 참신한 아이들의 발상과 감동을 주는 소감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든 생각! ‘이 친구들에게 상을 주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올 해 처음으로 ‘탁틴스쿨 와~’ 우수소감문 시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51명의 학생들이 선정되었으며, 상을 받은 학생들 중에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 함께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감사의 편지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과 사진에 담겨있는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함과 동시에 뭉클했습니다. 많은 소감문을 확인하면서 교육 이후에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생각이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학교기관 담당자 및 아동·청소년 의견 및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감문 수상자 명단

■ 그린나래 상(그린 뜻이 아름다운 날개)

강당초등학교 한예은
석사초등학교 황지은
시랑초등학교 최유나
당진신촌초등학교 나유빈
영광초등학교 최성미
천전초등학교 김서현
용하중학교 김수빈

■ 해움 상(생각이 깊은)

덕수초등학교 노소희
삼호중앙초등학교 전태성
상월초등학교 유원선
화원초등학교 강은혜
호명초등학교 이서연
백령초등학교 민은혁
보성여자중학교 안영서

■ 아리알찬 상(아리따고 알찬)

동송초등학교 김수연
삼호중앙초등학교 강민영
삼호중앙초등학교 김하영
석사초등학교 이건용
옥산초등학교 김동울
옥산초등학교 오하린
전주팔복초등학교 유진
창남초등학교 성민서
남해여자중학교 하주옥
봉평중학교 고성하
순창제일고등학교 윤다솜
영산포여자중학교 최은지
영산포여자중학교 김세진
영산포여자중학교 유혜림
영산포여자중학교 유소운
보성여자중학교 조민희

■ 푸른나래 상(푸르고 싱그러운 날개)

영산포여자중학교 김다빈
방일초등학교 유희영
춘천부안초등학교 홍진주
서울동산초등학교 김다솜
석문초등학교 문서연
석사초등학교 김예림
옥산초등학교 김동울
호명초등학교 이윤하
대창중학교 고상인
백령중학교 한솔지
영산포여자중학교 최동은
영산포여자중학교 김가빈
영산포여자중학교 김지영
영산포여자중학교 김민주
영산포여자중학교 윤가영

■ 예쁜글씨상

상월초등학교 김다현
용하중학교 유희주

탁틴

강원 철원 ○○초등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기 안아 보기 체험 중에 한 남학생이 '아기는 안 무거웠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아기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더니 집에 있는 동생이 생각난다며 눈에 눈물이 그림그림 맺히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아기에게 "건강하게 자라" 라는 한마디를 해주었다.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학생이었다.



경남 고성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중에 "여러분 사춘기가 뭔지 알아요?" 라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그 때, 한 여자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목소리로 "꽃이 피듯이 생각에도 꽃이 피는 시기예요" 라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사춘기를 예쁘고 참신하게 표현해 안에 있던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였다.

강원도 인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며 별 보기 체험을 하던 중 많은 친구들이 "우와~ 멋있다!", "소원빌어야지~" 라는 여기저기서 감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한 남학생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전기세 엄청 나오겠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전기세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귀여웠다.



Talk!

경북 군위 00초등학교

교육이 끝나고 박수치며 마무리 하고 있었다. 다들 일어서서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는 중에 한 여학생이 선생님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선생님이 웃자 같이 기분 좋아하였다. 그리고 태동체험을 할 때 다른 여자친구에게 "친구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러한 느낌을 준 거야" 라고 설명했더니 눈이 커지며 놀랍고 신기한 표정으로 체험을 하고 일어서기 전에 선생님을 뽀뽀하게 보더니 볼에 뽀뽀를 했다.



강원 횡성 00초등학교

5학년 바다반 수업을 하면서 사춘기 몸의 변화를 다루는 중에 털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면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라며 말끝을 흐리길래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조금 부끄러운데.." 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순간 조용해지며 아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했더니 손으로 젖꼭지 부분을 가리키며 "저는 여기에 털이나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아이들은 한바탕 웃었다. 선생님은 털은 사람마다 몸의 변화가 다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탁틴 Talk!

전북 진안 00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려는 중, 한 여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급하게 버스로 뛰어왔다. "예쁜 것 고르세요" 라고 말하며 강사에게 건넨 손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네잎클로버가 코팅되어있었다. 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 급하게 코팅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져 강의 후에 물려오는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다.



경기도 안양 00 중학교

생명체함을 하며 미래의 내 아기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었다. 보통 중학교 남학생들은 아기 안아보는 체험을 어색해 하고 해줄 말이 없다며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학생이 "아빠가 잘 키워줄게~ 착하게 자라라~" 등 멋진 말을 해주어 강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강사들의 칭찬을 받은 친구의 모습을 보고 뒤에 남아 체험을 기다리던 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윽고 자신의 차례가 오자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사...사...사랑해?" 라며 이야기 했다.

세종시 OO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소중한 우리 몸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많은 친구들의 질문과 오답 퍼레이드가 이어지던 중 한 남학생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책을 많이 읽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는 달리,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강원 원주 OO 초등학교

4학년 수업 중 남자의 생식기를 알아보고 있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축구 선수 호날두는 인공불알인데 인공불알도 정자가 만들어져요?" 라고 질문을 하였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바탕 웃었다.



Changing

- 만족도 조사
- 학교에서 온 편지
 - 학생교육소감문
 - 교사 후기
- 언론보도 현황

아동 · 청소년과
함께 꿈을 그립니다



[2014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만족도 조사]

본 분석은 2014년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체험형 성교육을 받은 전국의 학교 및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만족도 분석으로 총 206개 기관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 설문지 별첨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평가서(기관용)

교 육 일		직 위	
학교(기관) 명		이 름	

(해당되는 칸에 v 표 해 주세요.)

평 가 내 용	평 가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교육신청 절차는 편리하였습니까?					
2. 교육내용은 대상에게 적합하였습니까?					
3.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였습니까?					
4. 성교육수업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5. 강사의 강의 방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6. 교육 이후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태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에 한마디!!^^ (기타 의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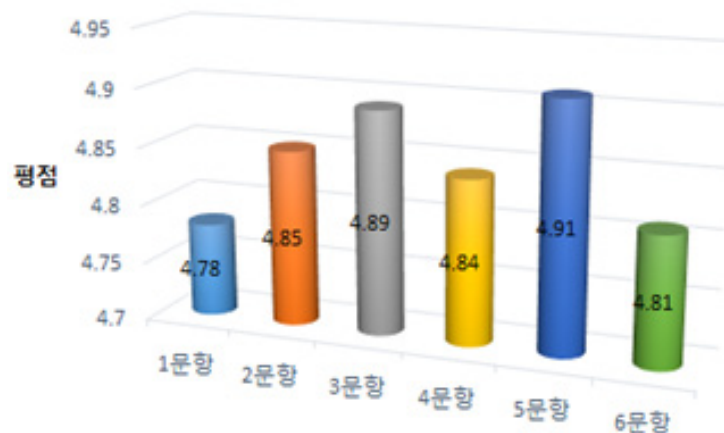
- 조사기간: 2014년 2월~12월
- 조사방법: 프로그램 평가서 설문지 배포
- 조사대상: '탁틴스쿨 와~' 교육이 이루어진 학교 및 기관 담당자
- 설문내용: '탁틴스쿨 와~' 교육 및 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설문지 별첨)
- 조사결과
 - 가. 응답자수: 206명

구분	계	기관	
		학교(초,중,고)	복지시설
대상자 수	272	233	39
응답자 수	206	19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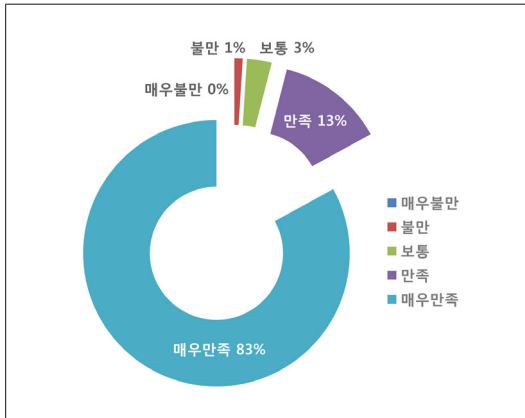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 만족도 총 평점: 4.84점(5점 척도)
- 영역별 평점

설문 문항	평점
1. 교육신청 절차는 편리하였습니까?	4.78
2. 교육내용은 대상에게 적합하였습니까?	4.85
3.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였습니까?	4.89
4. 성교육수업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4.84
5. 강사의 강의 방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4.91
6. 교육 이후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태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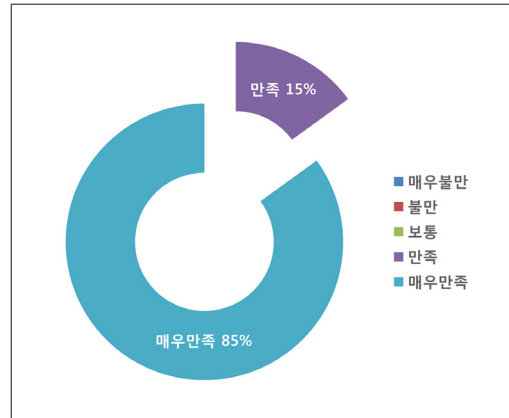


○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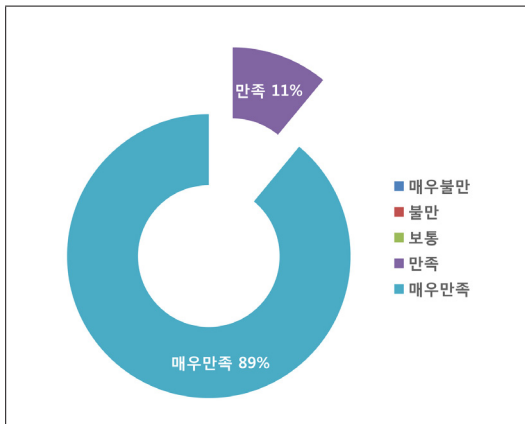
1. 교육신청 절차는 편리하였습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된 교육 신청 절차의 편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3%(171), 만족 13%(27), 보통 3%(6), 불만 1%(2)로 집계되었다. 불만 1%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다보니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날짜에 이미 다른 기관의 교육이 잡히거나 접수문의가 폭주하여 일정조율이 늦어지면서 절차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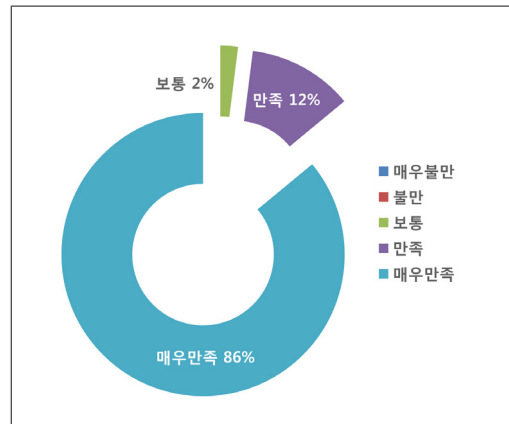
2. 교육내용은 대상에게 적합하였습니까?

교육내용은 대상에게 적합하였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5%(176), 만족 15%(30)로 대체적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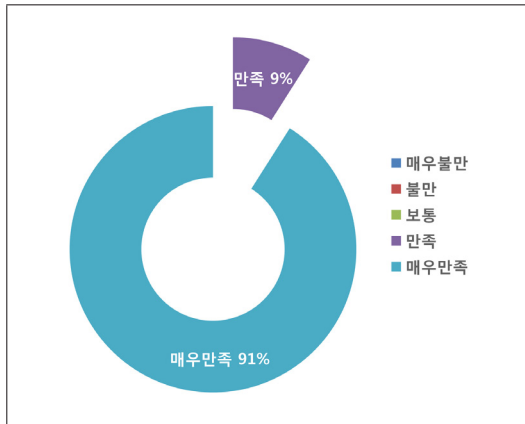
3.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였습니까?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였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9%(184), 만족 11%(22)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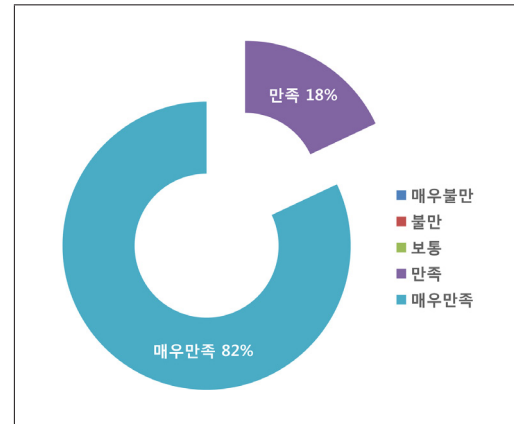
4. 성교육수업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성교육 수업시간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6%(178), 만족 12%(25), 보통 2%(3)로 대체적으로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체험활동을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5. 강사의 강의 방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강사의 강의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 91%(188), 만족 9%(18)로 강사의 강의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6. 교육 이후 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태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 이십니까?

교육 후 학생들의 성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82%(168), 만족 18%(38)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잘 이해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탁틴스쿨 와~'

아동 수준에 맞게 성교육이 실시되고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무리가 인상적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변덕스런 날씨와 학교 진입로의 불편함에도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행복해 하는 아
이들 모습을 보니 교육효과 충분히 달성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나아가 나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지리산 골짜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뭐라 감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공간 버스 안에서 알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내용들로 짝
찬 교육과 체험으로 눈빛이 반짝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던 아이도 미리 교육받고, 교육함으로서 쉬쉬하는 것이 아닌 밝은 성으로
거듭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양한 정보의 사춘기 수첩도 Good. 시간이 짧아 자
세히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학교에서도 보충 설명할게요.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에 의해 흥미와 관심이 높은 교육이 되었으며 좋은 기회로 즐
거움을 선사한 교육이었으므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담담하게 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설명으로
한 학년 한 학년 지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지식 뿐 아니라
감동과 따뜻함도 있어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약속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에게 한마디!

소규모 농어촌학교이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입니다.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받는 교육이라서 집중도,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셔서 내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대하고 만족해하는 성교육입니다. 농촌학생들에게도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신나게 달려가는 '탁틴스쿨 와~' 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진짜 와~하는 소리가 교육내용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태동을 느끼는 체험이 학생들에게 생명의 신비 및 타인에 대한 존중 등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내용을 버스 안에서 전문강사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되니 아이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감사합니다. 이런 성교육이 아이가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꾸준히 지원되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직접교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짧아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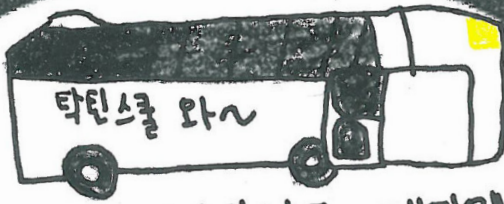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교육환경과 차별한 강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교육시간이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정기적인 방문과 횟수에 따라 좀 더 밀도있는 교육이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겠습니다.

체험형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속의 밝고 아름다운 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교 육 일	3월 25일	성 별	여
학교(기관) 명	호명 초등학교	학 번	3학년 이시연



탁틴스쿨 와~

뒤는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성 교육.

스쿨 와~ 탁틴 스쿨 와~ 버스가 왔어요.

스로 나만의 성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려주
고 갔어요.

하게 솔직하게 성에 대해 대답할수 있어요.

와~ 또 와! 탁틴버스 기다리게!!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나일

물집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이름	○ 하 근 (남 / 여)	교육 일	10월 17일 금
학교(기관)명	육산초등학교	학년	4학년 1반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김수빈

교육일	2014. 03. 20	성별	여자
학교(기관)명	용하중학교	학년	3학년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나일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이름: 안영서

교 육 일	2014. 05. 27	성 별	女
학교(기관) 명	보성여자중학교	학 년	2-1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까지
만 해도 나는 커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
이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아프고 힘들 것 같기 때문
이었다. 하지만 이번 체험을 통해 아기가 생기는 과정과
조그마한 아이를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고 산모가 느끼는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니 우리엄마 뱃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갖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мок 것 같아 결국 아기에게 한말은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그 말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이 되서 꼭 아이를 갖고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나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었기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체험해도 좋을 것 같다.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이름	최동은 (남 / 여)	교육일	11월 5일
학교(기관)명	영산포여자중학교	학년	1학년

미래의 '나의 아기'에게

안녕 아가야?

나는 너의 엄마란다.

예전에 엄마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는걸
상상하지도 못했어. 아기를 낳지 않겠다 말하기도 했지.

그런데 며칠 전 엄마가 성교육을 받았어.

그 성교육에서 너와 같은 아기를 만났어.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래.

그만큼 너란 존재가 중요한거야. 엄마가 거기서 무얼 깨달았는지
알아? 바로 생명은 소중하다는거였어. 아기는 부담감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굉장히 반성됐지.

그리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우리 아기도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단다.

아가야, 너도 엄마 뱃속에서 건강히 잘 자라
꼭 당찬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주렴.

사랑해 ~♡

- 사랑하는 너의 엄마가 -

청소년과 함께 공부하는
탁틴내일

문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프로그램 소감문(학생용)

이름	윤소윤 (남 / 여)	교육일	11월 6일
학교(기관)명	영산포여자 중학교	학년	3

To. 미래의 내 ^(아기) 아이에게

안녕? 미래의 내 아기야. 나는 미래의 너의 엄마란다.

일단 이름을 생각했는데 ... 예린이가 예쁠 것 같아.

많이 서투르고 모범적이지 않은 엄마지만 그래도 예린이가 있어서 좋다.

엄마는 한복은 가정이여서 예문이는 꼭 엄마 아빠와 함께 자란다면 좋겠어.

한 분이라도 안게되면 아무리 어느 한쪽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 허전하고 가끔은 너무
우울하기도 해. 엄마가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편이 아니야. 그래도 미래에 예문이의
이유식이나 밥을 차려주게 되겠지? 생각만해도 좋아. 엄마는 예문이를 낳고 나면
한명을 더 낳을거야. 혼자면 굉장히 외롭거든. 엄마도 외동이라서 정말 외로웠어.

예문이가 엄마옆에 있다면 ~~정말~~ 꼭 동라책도 읽게 해주고 예문이가 해보고
싶은것도 함께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미래에서 꼭 만나서
좋은 부모도 되고 힘든건 기대는 기쁨도 되고 친목처럼 친해지고 싶어.

미래에서 보자~

탁틴스쿨
탁틴스쿨

교사 & 기관 담당자 소감



강원 호명초등학교
교사 장미영

안녕하세요^^

〈탁틴스쿨 와~〉를 만난 올해는 교사인 저에게도 우리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쇼킹하고도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교육 관련 자료들이 가득하고 아기자기 잘 꾸며진 아늑한 블루버스에 오르는 순간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진지모드로 변신한 걸 보며 교육 환경조성이 정말 중요한 수업요소라는 걸 다시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성가치관, 생리학적성, 사춘기, 아기의 탄생 등에 대해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짧은 시간의 성교육도 저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이 인생에서 그 어떤 수업보다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수업임을 늘 주지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까

연구하고 고민하는 교사로서 〈탁틴스쿨 와~〉의 성교육은 또 다른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성교육을 위해 오신 두 분의 선생님도 아이들의 일대일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명초등학교는 강원 평창군이라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6학급 소규모 학교이기에 〈탁틴스쿨 와~〉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고 그 결과 3월에 실시한 성교육을 12월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아이들을 보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탁틴 측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본교에 재학중인 두 학생의 소감문이 우수소감문에 선정되어 무려 5만원권의 상품권과 포근포근 담요,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타요버스(사실은 탁틴버스) 양말까지 받아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교사로서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중하고도 뜻 깊은 성교육을 우리 학교에 전해주고 가신 선생님들과 먼 길 버스를 운전해 와주신 기사님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농어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좋은 경험을 하였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학교에 또 와주시길 바랍니다. ^^



충남 시랑초등학교
교사 **박정재**

신규교사가 되어 마주하게 된 4학년 학생들은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업, 쉬는 시간 울려 퍼지는 학생들의 웃음 소리는 저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한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사로서 제가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교, 교사인 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탁틴스쿨 와~’

와 의 찾아가는 성교육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성교육 신청을 하였고 이곳 시골 학교까지 ‘탁틴스쿨~와’의 체험버스가 온 것입니다. 탁틴스쿨과 함께하는 성교육 시간은 학생들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냈고 무수히 많던 성에 대한 호기심을 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저학년 학생과 고학년 학생들의 수준별 성교육은 학생들이 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탁틴스쿨 와~’의 체험버스에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성교육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보고, 만지고, 선생님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탁틴스쿨 와~’와 함께한 성교육 이후로 4학년 11명의 꼬마아이들은 성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고 성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탁틴스쿨 와~’의 성교육 이후로 학생들 앞에서 성교육을 하게 될 때면 조금 더 성을 존중하는 자세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비단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탁틴스쿨 와~’의 성교육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탁틴스쿨 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팔복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이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지원입니다.

우리 학교에 순회 보건 교육차 방문하신 타학교 보건 선생님을 통해 탁틴내일을 소개받아 지난 9월 30일(화) 전교생 11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버스(블루 버스) 체험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전주팔복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한 개 학급이 있는 소규모 학교인데다 매년 강조되고 있는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보건 교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지도해주실 성교육 관련 전문 강사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우연히 듣게 된 탁틴내일을 통해 본교 학생들 모두가 너무나 알찬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 모두 성과 관련해 잘 꾸며진 버스 안에서 재미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즐거워하였고 본교 선생님들 역시 강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주셨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시각 전에 이곳 전주까지 내려오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진행해주신 버스 기사님과 강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훌륭한 성교육을 원하시는 타학교 선생님들도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전주팔복초등학교 교사 최지원 —





강원 부안초등학교
교사 **최은영**

안녕하세요? 춘천 부안초등학교 보건교사 최은영입니다.

올해로 3년째... 학교는 다르지만 움직이는 성교육 교실, 탁틴스쿨 와~ 성교육 버스가 학교로 직접 와서 성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재작년 산촌지역의 작은 학교에 근무했을 때는 소규모학교여서 무료 성교육을 진행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MAC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성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버스 내부라든지,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산모 인형, 품안에서 들어오는 신생아 인형은 학생들이 평소에는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의 기억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배려해 버스 바닥도 따뜻하게 덮혀주시는 점이라든지... 신발장까지 가져오셔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에 버스 안의 전등을 모두 끄고 버스 천정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별을 켜주시면서 수많은 별들처럼 아이들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별처럼 반짝인다는 말씀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습니다. 학년이 다른 경우 성교육 내용을 조금씩 수준에 맞게 달리 해주시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시간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지만, 대부분 교육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어, 이렇게 성교육을 재밌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교육하는 데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많이 개발해주시고, 우리학교에는 또 찾아와주시면... 아니 매년 찾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탁틴내일, 파이팅~

울진 드림스타트, 초등생 대상 이동식 전시버스 활용 성교육

2014-04-12 08:00:54

김중엽 kjynks@yeongnam.com



성교육 관련 기자재가 탑재된 탁틴버스에서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8~9일 이틀간 탁틴버스를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역의 초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탁틴버스는 버스를 개조한 국내 최초의 이동식 성교육 체험·전시버스로 각종 성교육 관련 기자재가 탑재돼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위 부계초 생명존중 · 성교육, 생명의 소중함 ·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학년 맞춤형 체험활동 '눈길'

기사입력 | 2014-05-14

이만식 mslee@kyongbuk.co.kr



군위 부계면 부계초등학교는 13일 성문화센터 '탁틴 내일'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 성교육을 실시했다. 군위군 부계면 부계초등학교(교장 김원한)는 13일 성문화센터 '탁틴 내일'과 군위군보건소와 연계해 부계초등학교 생명존중 및 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문화 센터의 살아있는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과 성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더불어 생명존중의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性)건강, 성(性)문화, 생명존중'으로 구성되어 저학년, 고학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인간의 성과 생명존중에 대해 난자와 정자의 수정, 임신, 출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OX 퀴즈풀기,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 기르기, 신생아 안아보기, 산모인형 태동체험 등 사실적이고 체험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생아 안아보기 활동에 참여한 6학년 김천식 학생은 "아기가 태어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몰랐어요. 특히 무거운 아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했다. 교육관계자는 "학생들이 부끄럽고 감추고만 싶은 성(性)을 다채로운 성교육 교구와 최첨단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여 석성초, 2014학년도 탁틴버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교육 실시

2014년 06월 11일 (수) 14:30:42

이병렬 lby4426@gmail.com



석성초등학교(교장 김용일)에서는 10일 유치원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부여군 드림스타트센터의 협조를 받아 탁틴버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교육을 실시했다.

탁틴성교육버스는 성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한 국내 최초의 이동식 성교육 전시, 체험버스로 성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성교육 콘텐츠와 체험 교육자료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교육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버스에 탑승하여 성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로 아기의 탄생, 생식기 관리하기, 음란물 예방 교육 등 평소에 궁금해 하던 많은 교육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탁틴성교육 버스의 교육과 체험이 끝난 후 2학년 김다은 학생은 “엄마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신기했고 금방 태어난 아기도 너무 무거워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했다.

석성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른 성교육의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충청시티신문(<http://www.nonsa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찾아가는 성교육, 깨어나는 바른 성의식

예산 평촌초, 움직이는 성문화 체험교육
승인 2014.10.15. 16:29:26 / 박인중 bakin114@hanmail.net



평촌초 학생이 아기 인형을 들고 웃고 있다.

[예산 = 충청일보 박인중 기자] 예산평촌초등학교는 지난 14일 1,2교시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성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버스 안에 꾸며진 전용 교실에서 이뤄졌다.

1교시에는 저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성교육 자료를 통해 교구를 직접 만져보며 생식기의 자세한 구조에 대하여 배웠다. 이후 2교시에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몸의 변화와 소중한 내 몸 지키기에 대한 자세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했다.

이번에 평촌초에서 실시한 교육은 기존의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하여, 오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형 성교육이었다. 학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버스 안 교실에서 많은 성교육자료도 구경하고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도 하면서 우리 몸에 대한 지식도 쌓고 흥미로운 성교육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언론보도 현황

번호	보도일자	매체명	보도기사 제목
1	2014.03.31	뉴스1	밀양시, 학생 대상 '이동식 성교육 버스' 운영
2	2014.03.31	아시아뉴스통신	밀양시 드림스타트, 이동형 버스 성교육 실시
3	2014.03.31	뉴스스	밀양시 드림스타트, 이동형 버스 성교육
4	2014.03.31	뉴스웨이	밀양시 드림스타트, 이동형 버스 성교육 실시
5	2014.04.02	경남신문	“버스에서 성교육해요”
6	2014.04.09	세계일보	이동식 탁틴 버스에서 성교육 받아요
7	2014.04.10	경북일보	울진군, 탁틴버스 활용 아동 성교육 실시
8	2014.04.12	영남일보	울진 드림스타트, 초등생 대상 이동식 전시버스 활용 성교육
9	2014.04.14	대구일보	울진군 탁틴버스 활용 성교육 실시
10	2014.04.18	충청남도 인터넷방송	서천군, 드림스타트 성교육 실시(4월18일/서천군)
11	2014.04.18	충남넷	드림스타트 성교육 실시 우리 몸은 소중해요
12	2014.04.21	충청일보	“우리 몸은 소중해요”
13	2014.05.13	경북매일	군위효령초 “몸 소중함 · 성문화 바르게 이해를”
14	2014.05.14	경북일보	군위 부계초, 생명존중·성교육, 생명의 소중함,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15	2014.05.15	아시아뉴스통신	진안군, “탁틴버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교육” 실시
16	2014.05.15	전북도민일보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탁틴버스와 함께 어린이 성교육
17	2014.05.15	뉴스1	진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한 성교육’ 진행
18	2014.06.10	충청시티신문	부여 장암초, 전학년 성교육 실시
19	2014.06.11	충청시티신문	부여 석성초, 2014학년도 탁틴버스와 함께하는 건강한 성교육 실시
20	2014.07.21	광주일보	보성 청소년복지센터 이동식 버스 성교육 ‘탁틴 스쿨 와~’ 호응
21	2014.08.13	대구일보	의성군, 드림스타트 아동대상 움직이는 성 놀이터 프로그램
22	2014.08.13	경상매일신문	이동형 버스 성교육 실시
23	2014.08.13	KNS 뉴스통신	의성군, 드림스타트 아동 이동형 버스 성교육 실시

24	2014.08.15	경북일보	고려대 행복나눔 83봉사단, 예천서 재능기부
25	2014.08.15	매일신문	의성군 드림스타트 아동들 대상 ‘탁틴버스’ 이용 이동식 성교육
26	2014.08.18	데일리팝	인천의료원, 지역 아동 대상 ‘탁틴 성교육’ 진행
27	2014.08.18	아시아뉴스통신	인천의료원, 지역 아동 성교육도 앞장
28	2014.08.18	일요신문	인천시의료원, ‘탁틴 버스’로 성교육 실시
29	2014.08.18	경기신문	인천시의료원, 성교육 기자재 탑재 버스로 아동 성교육 실시
30	2014.08.20	청년 의사	인천의료원, ‘탁틴 버스’로 아동 성교육 실시
31	2014.08.20	인천일보	인천시의료원 ‘탁틴 버스’ 아동 성교육 실시
32	2014.08.20	사랑의열매 서포터즈	탁틴내일 버스, 오늘도 달리는 성문화센터!
33	2014.09.26	아름다운세상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버스 운영
34	2014.09.28	대전투데이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버스 운영
35	2014.10.08	국제뉴스	함양군, ‘탁틴스쿨’ 이동버스 성교육
36	2014.10.15	동양일보	찾아가는 성교육, 깨어나는 바른 성의식
37	2014.10.15	충청일보	찾아가는 성교육, 깨어나는 바른 성의식
38	2014.10.20	충청투데이	당진 고산초, 탁틴 성교육 체험 버스 운영
39	2014.10.21	대전투데이	서천 문산초-서면초,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체험
40	2014.10.22	대전투데이	청양 운곡초,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고 성폭력 예방해요!
41	2014.10.22	충청매일	청양 운곡초 성폭력 예방 교육
42	2014.11.04	경남매일	남해청소년센터, 중학생 대상 성교육
43	2014.11.25	대전투데이	이인초, 성교육 체험버스를 통해 성에 대해 공부해요
44	2014.11.25	충청일보	이인초, 성교육 체험버스를 통해 성에 대해 공부해요
45	2014.11.26	충청투데이	공주이인초등학교 성교육 체험버스 이용성 가치관 교육
46	2014.12.10	금강일보	“체험 버스에서 내 몸의 소중한 배워요”

부 록

- 맛집 Best 4
- 숙소 Best 4
- 기억에 남는 순간 Best 4
- '택틴스쿨 와~' 가족이야기
- 교육신청안내

탁 트인 내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2014 Best



첫 번째 맛집! 전남 영광 우등 숯불갈비

영광군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맛 집!

돌솥비빔밥은 많이 들어봤지만, 돌판비빔밥은 처음이라 주문을 했더니, 식욕을 자극시키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등장! 돌판 위에 밥과 볶은 고기 다양한 야채와 함께 쓱쓱 비벼 먹는 맛이 최고^_^ 영광하면 굴비가 아니라 돌판비빔밥이 생각날 것 같아요~



세 번째 맛집! 경남 통영 밀물식당

따뜻한 봄날 방문했던 통영~ 통영의 맛 집 밀물식당을 소개합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도다리과 멍게, 그리고 사장님께서 싱싱한 멸치가 들어 왔으며 추천해주신 멸치회! 그렇게 도다리썩국과 멍게비빔밥 멸치회를 시켜 보았답니다. 제철음식답게 입안에 넣자마자 보들보들 녹아버리는 도다리썩국과 멍게는 비릴거야 라는 편견을 깬 멍게비빔밥. 싱싱한 멍게와 고소한 참깨, 참기름이 함께 어우러져 고소함이 입안 한가득 퍼지는 맛이 일품이었어요. 아저씨께서 추천해주신 멸치회는 어마어마한 양과 새콤달콤한 양념과 싱싱한 멸치가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어요! 통영으로 여행가면 꼭! 한 번 밀물식당 들려보세요! <_<



농·산·어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탁틴스쿨 와~'. 4명의 성교육 강사들은 전국을 다니다보니 뛰어난 미각으로 각 지역의 숨겨진 맛집을 찾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성교육 강사들이 각 지역을 다니며 매의 눈으로 찾아낸 맛집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두 번째 맛집! 강원 춘천 함흥냉면!

춘천의 명물은 닭갈비라는 편견은 NO NO! 춘천 핫 플레이스 함흥냉면이 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빠 움직이시는 직원들과 바글바글한 손님들~ 이 집의 대표메뉴 함흥냉면! 회냉면이라고도 불리는 함흥냉면은 양념된 명태회 고명이 없어서 나와 육수를 붓고 싹싹 비벼 먹으면 새콤달콤 GOOOOOD(^-^)

기호에 맞게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맛집! 강원 횡성 장원뚝배기!

강원도 횡성 둔내 시장 안의 맛집!

모든 메뉴들이 얼큰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주인아저씨께서 예전에 짜장면과 짬뽕을 파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밥으로 바꾸셨대요. 얼큰이국밥과 내장탕을 각각 하나씩 시켰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주얼의 음식이 두 개?! 똑같이 보이지만 신기하게 다른 맛이 나요!얼큰하게 속이 풀리는 맛! 횡성 장원뚝배기 추천합니다 >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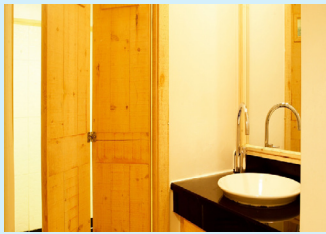


2014 Best 휴식은 나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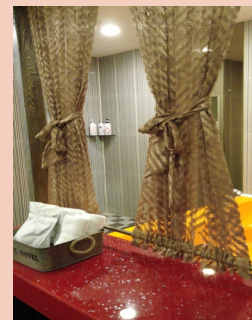
첫 번째 숙소! 충남 아산 파라다이스 모텔

뭐니뭐니해도 좋은 숙소의 첫 번째 조건은 청결이죠!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외관과 따뜻한 온기와 더불어 쾌적한 느낌이 들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해요!



세 번째 숙소! 전북 전주의 타임모텔!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의 신시가지에 있는 최신식 건물의 숙소입니다. 외관이 화려하고 넓은 방을 가진 숙소도 대부분 샤O망 같은 프랑스 샴푸인척 하면서 머리를 감고나면 잘 빗어지지 않는 샴푸를 사용하는데, 이 곳은 최신식 세면도구는 물론, 여자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인 고데기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고 반짝반짝하는 소품들이 많아 휴식은 물론, 여행은 것처럼 설렘을 주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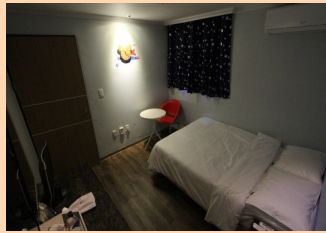


전국 각지를 다니며 교육을 하다보니 식도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인데요~ 길게는 8년, 짧게는 1년 전국 곳곳의 숙소를 다니는 성교육 강사들은 이제 어떤 숙소가 좋은 곳인지 딱! '보면' 알지요. 전국의 많은 숙소 중 저렴하고 편안한 Best 숙소만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숙소! 강원도 인제의 신라모텔

민간인보다 군인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강원도 인제의 숙소입니다. 소개해드릴 다른 숙소보다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이 곳의 특징은 보기만해도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넉넉한 간식이 로비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차 종류도 다양하게 있으며 다양한 간식들도 오가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인심 좋은 사장님 덕분에 마음이 더욱 풍족해져요~^^



네 번째 숙소! 강원도 고성 캘리포니아

좋은 숙소의 기준은 편리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장님이라는 호칭보다 주인 아저씨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리는 인상 좋은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숙소 앞에 있는 텃밭의 야채도 마음껏 먹으라는 넉넉한 인심과 객실의 의자와 탁자를 편백나무를 이용해 직접 만드시는 솜씨도 가지고 있어서 목수도 겸업하신다고 해요! 게다가 숙소에 살고 있는 귀여운 백구들과 숙소 앞에 바로 보이는 에메랄드 빛 바닷가와 하얀 백사장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쌓였던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 Best 4!



#1 빛 속의 그 아이



4월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 전북 순창의 한 중학교 교육이 있을 때였다. 수업시작 전에 한 남학생이 “이 버스 서웁 가요? 서웁 가면 나도 테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 종종 아이들이 하는 얘기라서 장난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넘어갔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남학생이 진짜 서웁 테려가 달라며 기다리고 있었다. 잘 타일러 보냈지만, 버스가 교문을 빠져나올 때 교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잘 가 라며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버스가 눈에서 안보일 때까지 비를 맞으며 손을 흔들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잊혀 지지 않는다.

#2 "여기 와이파이 잘 터져요?"



“아저씨, 와이파이 잘 터져요?” “아~ 와이파이 잘 터지는 핸드폰 찾으시는구나~” 한 통신사의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전국을 다니며 교육은 물론, 행정업무까지 함께 해야 되는 강사들은 숙소를 찾을 때마다 광고처럼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정보통신, 스마트폰 보급률 등 우리나라가 IT 강국에 들어선지는 오래되었지만 강사들이 주로 다니는 농·산·어촌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어느 날, 사진 두 개를 다운로드 받는 데만 1시간이 걸려서 결국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로 강사들은 숙소를 찾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와이파이 잘 터져요?”

26,753명, 1232회, 273일, 370곳...앞에 나열한 숫자는 2014년 '탁틴스쿨 와~' 와 관련된 것입니다. 1년 동안 전국 팔도의 다양한 학교와 지·자체를 방문하며 수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만났고, 각 곳의 담당자들에게 환대와 격려를 받아 힘을 얻기도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14년 절대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떠올려봤습니다!

#3 칭찬은 강사들을 춤추게 한다!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적은 지방을 주로 가다보니, 가는 곳마다 각 학교·지자체 담당자 선생님들이 몸뚱 바느 모른 정도로 환대를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10월 전북 무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양일간 교육을 진행했는데, 첫째 날부터 교감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오셔서 직접 우린 배급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교육을 마치고 급식실에서 같이 식사준 하는데 갑자기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밥 한숟 드시고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반찬한번 드시고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국물 한번 드시고 “운전하시는 기사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죠?” “진짜 좋은일 하십니다.” 등 엄지 손가락도 연신 세우시면서 계속 칭찬을 해주셨다. 덕분에 평소 15분이면 끝났던 점심식사는 40분이 넘었고, 서둘러 돌아가야 된다는 조급했던 마음과는 달리 30분이 넘도록 청소년 성교육에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계속 된 칭찬에 민망하긴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30년이 넘게 계셨던 선생님께서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

#4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 어디 없나요?ㅠ-ㅠ



피로가 풀릴 정도로 좋은 숙소도 많지만 하룻밤을 숙박하는 데도 힘든 숙소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던 12월 어느 날, 4시간이 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출발할 수가 없어 일요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오후 9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버스를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계속 헤매다가 겨우 주차를 했는데 이번엔 또 숙소를 찾기가 힘든거예요! 그 지역에 몇 개 없던 숙소를 고르고 골라 들어갔더니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는지 목욕탕에는 한움큼의 머리카락과 구터기들이 있었고 침구들도 누런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게다가 방은 어찌나 좁던지ㅠ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쌓인 피로가 더 쌓여서 유독 피곤했던 출장이었습니다.



'탁틴스쿨 와~' 가족 이야기



교육사업부 정효진

전국 방방곡곡의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다보니 벌써 1년이 다 되었고, 2만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새벽잠 설치며 눈 비비고 일어나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늘 차와 간식까지 챙겨주시며 저희를 반겨주시고 숙소까지 챙겨주시는 마음에 또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서산간지역을 다니다보면 버스 창밖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 바다가 얼마나 멋진지 자연에 대한 감사함마저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눈과 마음에 깊이 담아옵니다.

새벽출장은 늘 나 자신을 긴장하게 하고 피곤을 느끼게 하지만 이런 감동 충만으로 늘 마음이 넉넉해지는 듯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들이 하나, 하나 눈에 선합니다. 멋진 2014년을 선사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맥(MAC)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바글램 캠페인'의 따뜻한 나눔으로 전국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교육사업부 이예진

“선생님, 안아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친구와 “선생님, 정말 잘 배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힘들게 찾은 네잎클로버를 코팅까지 해서 건네주던 진안의 친구도, 솔까성 캠프를 함께했던 강화도의 친구들, 직접 상을 수여하지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던 51명의 아동·청소년까지 생각이 납니다.

2014년을 되돌아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생각해봤더니, 잦은 새벽출장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조그만 동네 골목에 학교가 있어서 진입할 때 애를 먹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역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웠던 순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2015년에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부 이승혜

'탁틴스쿨 와~'와 함께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설렘을 안고 첫 강의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즐거워하고 집중하는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재미있고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오라며 본인이 아껴놓았을 간식들을 챙겨주는 아이들, 버스가 떠나갈 때까지 교문에 서서 손을 흔들던 아이들, 선생님 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고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전국의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힘을 얻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더욱 노력해 발전하는 힘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사업부 인치은

탁틴내일에서 대학생 봉사자로 활동하던 시절, 진주로 버스성교육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성교육을 하는 기관도 많지 않았던 때에 버스성교육은 그야말로 놀라움 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고 한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 봉사자로 인연을 맺었던 곳에서 버스성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전국을 다니다보니 우리나라에 해저터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논밭을 보며 사계절의 멋진 풍경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좋았던 건 성교육을 통해 만난 아이들의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다 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학생이 어느새 친구들과 웃고 있고, 쉬는 시간부터 발판 앞에 자리 잡고 게임하며 버스에 먼저 타겠다고 기다리던 모습, 따자마자 코팅해 물기를 머금은 네잎 크로버를 들고 선물이라며 내밀던 모습. 지난 추억 하나하나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2015년에도 아동·청소년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대하며 파이팅 하렵니다!



Yellow Bus 운전기사
문석운

탁틴인 교육의 현장에서 더불어 하는 일이 보람되고 늘 즐겁습니다. 동서사방 학교마다 도움을 주는 탁틴내일의 비전은 세계의 미래를 여는 것 같아요. 또한 나를 긍지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정서 속에서 '탁틴스쿨 와~'성교육버스가 학교와 사회와 지역에 더 많이 기여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후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 합니다.



Blue Bus 운전기사
김덕노

1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모습은 분명 달랐지만 우리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곳곳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었고 난감한 경우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아이들의 꿈과 미소가 있어 즐거웠으며 주기보다는 받은 것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교육신청 안내

교육대상 전국의 농·산·어촌 학교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초·중·고)

교육내용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국내 최초의 이동식 성교육 전시·체험버스.
전국의 청소년들을 찾아가 다양한 성교육 콘텐츠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 실시

교육장소 대형버스(길이 12m, 폭 2.5m, 높이 3.5m)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전기연결이 가능한 곳

교육진행 1일 4회(1회당 40~50분/ 회당 25명 내외)
서울·경기 외 지역은 양일(1박2일)교육 신청
추가 교육 의뢰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교육신청 홈페이지(<http://www.tacteen.net>)
담당자와 일정 협의 후 온라인 교육신청서 작성 ☞ 온라인 예약확인
(예약완료) ☞ 담당자와 최종 교육일정 및 협약사항 확인 ☞ 교육진행
※ 반드시 협약서를 “꼭”읽어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문의 Yellow Bus ☎ 010-4669-7480 / 01046697480@hanmail.net
Blue Bus ☎ 010-4731-7480 / 01047317480@hanmail.net

2014 움직이는 성문화센터 ‘탁틴스쿨 와~’ 사업보고서

발 행 인 : 최 영 희

편 집 인 : 이 영 희

기획·편집 : 정효진, 이예진, 인치은, 이승혜

인 쇄 : 블루에볼루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전 화 : 02-338-7480

팩 스 : 02-3141-9339

홈페이지 : www.tacteen.net

2015년 1월 20일 인쇄/발행
